

1등 최우수상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선선회의 시스템 구축



주

사회가치혁신실
이상용 과장

부

사회가치혁신실
황준영 사원

1. 추진배경

· 비대면 회의 및 보고시스템 구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일하는 방식 개선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오프라인으로 모였던 여수 공용부두 선선회의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상회의 체제로 전환

2. 현황 및 문제점

· 여수 공용부두 선선회의 운영 현황

- 광양항 여수지역의 공용부두(중흥, 석화, 낙포, 제2중흥)는 공급 용량은 부족하나 수요가 과다하여 만성 체선 발생지역
- 용량이 제한된 부두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해 매일 선박의 접안순서, 화종 선택, 이·접안 시간 분배 등 결정 필요
- 공사 여수지사 중재 하에 매일 선선회의 개최 및 현안 해소필요

· 여수 공용부두 선선회의 운영의 문제점

- 여수 공용부두 이용자들은 안정적으로 공장에 원료 수급과 완제품 수출을 위하여 선선회의를 통한 부두 확보가 기업 경영의 최우선순위
- 매회 선선회의시마다 이해관계자가 10~15명(총 24개사) 참석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관계로 전화·이메일 등 수단으로 대체 불가
- 줌(Zoom) 등 일반화된 플랫폼으로 화상회의가 가능하나, 회의 참가자들이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 회의 참석시 여러 가지 제약 발생
 - a.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원활한 화면 공유(선선태그 등) 한계
 - b. 10~15명 동시 입장으로 에코 하울링 발생으로 원활한 소통 장애
 - c. 접속자간 통신 접속 상태(3G, 4G, Wi-Fi)가 달라 영상 장애 발생

이와 같은 현황 및 문제점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여전히 대면회의 방식으로
선선회의 진행 중

여수 공용부두 선석회의 방식(코로나 확진시기에도 매일 개최 중)



3.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비대면 선석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사의 안전과 효율성 강화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오프라인으로 모였던 여수 선석회의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상회의 체제로 전환
 - 고객사 매일 10~15명 선석회의 위해 여수지사 방문
 - a. 비대면 추진시 매일 연인원 10시간가량 출장시간 단축(왕복 20~30km)

☞ 출장 시간 단축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월 11백만원, 연 134백만원 가량의 고객사 비용절감 기대 가능

· 공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 및 플랫폼 단일화를 위해 공사에서 지원

- 우리 공사는 사회적책임대상 영예를 얻은 기관으로써, 이웃과 고객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상생실천 등 공공의 이익과 발전기여 추구
 - a. 선석회의 비대면 전환을 고객사들 각자에 맞길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 스마트 폰 사용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 곤란
- 또한, 안정적인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양질의 제품을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급 및 플랫폼을 단일화하여 호환성·안정성 확보 필요

· 화상회의 시스템 보급 기관 선정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석회의 참가기업 총 24개사 모두 비대면 선석회의 시스템 도입 및 참여 의사 확인 (여수지사도 별도로 1개 포함)
 - a. 고객사 목소리 경청 결과, 각자에 맞길 경우 회사 사정상 양질의 제품 구입이 힘들고, 각자 선호 제품이 다양하며, 모두 구입에 상당한 시일 걸릴 것

☞ 따라서, 광양항 생태계 근로자들의 안전과, 고객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여수 선석회의 비대면화 추진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품 선택
- 기능·에코캔슬링(하울링방지)·호환성·견고성 염두 제품 선정

- 시중에 화상회의 관련 제품은 많으나, 대부분 제품들이 웹캠·마이크·스피커 등이 분리 또는 별도로 구매 필요
 - 단순히 웹캠을 구입해도 별도로 헤드셋을 통해 마이크 및 스피커 기능을 연결해야 함
 - 또한, 웹캠·마이크·스피커 등이 혼합된 저가 제품의 경우 다자간 회의시 심각한 에코(하울링) 노이즈가 발생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곤란
 - 따라서, 기능성·에코캔슬링(하울링방지)·호환성·견고서·제품인지도 등을 감안해 가성비가 높은 우수한 제품 선택 필요
- * 저가제품 제공 후 사용 불편 발생시 대면회의 지속이 힘들며, 결국 양질의 제품으로 재구매해야 하는 일 발생 가능

4. 실무상 어려움

- 타 부서 업무 추진의 애로

- 사실 해당 업무는 여수지사의 업무였지만,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 측면도 있기에 혁신 업무 담당자인 저희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수지사의 선선회의 문제점으 알게되었고, 타 부서의 업무 추진에 월권으로 비칠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여수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었습니다.
- 비록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긴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위험하게 매일 수십명의 담당자가 대면 회의를 하고 있었기에, 누군가가 나서서 어서 빨리 비대면 선선회의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고객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